

# 섬+MICE산업...여수 섬의 미래를 본다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다음달 5~7일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전문가·업계 300명 참석  
섬 관광 융복합 발전 정책 방향 강연·토론...금오도 비렁길 탐방도

거문도와 금오도 등 36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는 여수에서 섬과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연계는 논의하는 '2018 국제 섬 관광 여수포럼'이 개최된다. 여수시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섬을 활용한 특화 MICE 발굴을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수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관한다. 주제는 '섬, 융·복합 MICE산업을 연결하다'다. 섬 관련 전문가와 관광·MICE업계 관계자, 대학교수, 학생, 주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섬 관광 정책과 방향과 섬 관광 트렌드, 국내외 섬 관광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주)메구리노와 대표는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섬 관광', 천리 운 싱가포르 관광청 소장은 '싱가포르의 개발 사례', 강봉룡(사)도서문화연구원장은 '섬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6차 산업과 섬 생업관광'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박람회장에서는 섬 관광 전시회도 볼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섬 소개 부스와 관광·MICE존을 운영한다. 마지막 날에는 금오도 비렁길 탐방 순서도 있다. 포럼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포럼 홈페이지(<https://iityf.modoo.at>)나 전화(061-659-3463-4)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휴식을 중시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섬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수의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특화 MICE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섬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특화 MICE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섬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금오도 비렁길. <여수시 제공>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00여 건의 MICE행사를 유치했고 방문객은 43만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mailto:chkim@kwangju.co.kr)



'2018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가 다음달 9일 여수시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축제 모습. <여수시 제공>

## 여수밤바다 수놓을 화려한 불꽃축제

다음달 9일 이순신광장·장군도 앞 해상서 열려

여수 밤바다와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불꽃축제가 다음달 여수시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서 펼쳐진다. 27일 여수시는 밤바다를 수놓을 화려한 불꽃 쇼 '2018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가 다음달 9일 오후 8시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다. 불꽃 축제 주제는 'Healing In Yeosu'로 무더운 여름을 보낸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꽃 쇼가 다양하게 연출된다. 불꽃의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 '멀티 컬러플 불꽃', 이중으로 상승해 불꽃 쇼를 연출하는 'UFO 불꽃' 등이다. 수직으로 상승하는 불꽃뿐 아니라 특수도구를 이용해 관람석 방향으로 불꽃을 발사하는 입체적 연출, 여러 색깔의 불꽃이 무지개를 연상케 하는 무지개 연출도 준비했다. 여기에 'LOVE' 문자를 밤바다 위에 연출하는 문자 불꽃, 무선으로 조정하는 6.5m의 불세 모험에서 연출되는 불꽃도 관람객의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꽃 쇼를 보조하는 조명(레이저) 시스템은 올해 더욱 화려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관람객과 600m 거리에서 레이저가

연출됐으나 올해는 300m까지 줄여 보다 생동감 있는 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축제 현장에서는 식전행사와 식후행사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국내 정상급 팝페라 공연팀 '오르 클래식', 4인조 일렉트릭 현악밴드 '바이올렛' 등의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여수시와 여수밤바다불꽃축제추진위원회는 수차례 사전회의와 점검을 통해 불꽃 연출뿐 아니라 지난해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축제 완성도를 높였다. 가장 큰 변화로는 지난해 2일간이었던 축제 기간을 올해는 하루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불꽃 쇼 연출에 집중하고 교통문제, 혼잡 등 시민 불편은 최소화했다. 축제개최 시기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인 8월에서 9월 초로 변경해 관광객 분산을 꾀했다. 축제 당일에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인력을 투입하고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수밤바다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불꽃 쇼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나긴 폭염을 보낸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불꽃 쇼를 보며 상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mailto:chkim@kwangju.co.kr)

## 비정규직 노동센터 개소...본격 업무 시작

1만여명 처우 개선 나서

여수시는 지난 22일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선원동 근로자복지회관에 동지를 들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내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각각 설치됐다. <사진> 센터는 1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여수공단 비정규직 등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센터는 앞으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예방, 취

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고용촉진 확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양대 노총과 센터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20일까지 사무실 개보수 등을 마쳤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여수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전남에서는 최초로 운영하는 만큼 비정규직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일부터 여수플랜트건설 취업알선센터에서 고령자 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일



자리센터는 전문인력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동 단절 문제 극복과 고령자 취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mailto:chkim@kwangju.co.kr)



## 이순재·손숙 출연 연극 '사랑별곡' 공연

내달 1일 여수시민회관서  
오후 2시·6시 무료 관람

여수시는 이순재와 손숙 등이 출연하는 '사랑별곡' <사진> 연극을 9월 1일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 여수시민회관 무대에 올린

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극공연은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두 번째 공연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려낸 이번 공연은 시골 장터에서 평생을 보낸 '순자'와, 그를 구하다 불구가 된 '박씨'의 이야기를 그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순재와 손숙 등 유명 연극인들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mailto:chkim@kwangju.co.kr)

뛰어난 희극 구성과 따뜻한 시선, 감각적인 연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공연 입장권은 광무동 예총여수지회, 교동 신나래레코드, 신기동 청음악기사, 학동 비엔나레코드 등 지정 배부처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순재와 손숙 등 유명 연극인들이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mailto:chkim@kwangju.co.kr)

#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제품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